

종합·해설

정부 영광 해상에 대규모 풍력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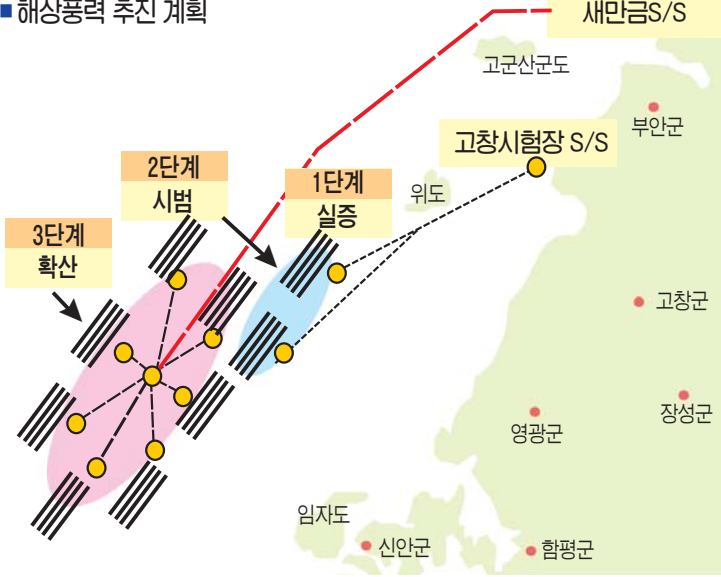
전남 풍력산업 날개 달았다

태양열·바이오 이어 미래 성장동력 기대

정부가 2일 내놓은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은 조속히 해상풍력 운영 경험을 확보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 풍력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 계획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의 로드맵에 따라 해상풍력실증단지 운영과 부안 경제 해역이 선정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남도가 뒤늦게 풍력산업에 뛰어 들었지만 전북도와 함께 영광·부안 해역에 국내 최초로 풍력산업실증단지를 조성키로 한데다, 태양열, 바이오에너지에 이어 또 하나의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풍력산업 활성화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전남이 추진중인 풍력산업 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5GW 풍력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가 조속 6~8m의 바람이 부는 풍력발전의 최적지임을 내세우며 신안 등 서남권 해상에 유치를 추진했지만 결국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진하거나 비용 부담이 큰 전력망 설치에 대한 지원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 사업 추진과 병행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해상 풍력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망 및 변전소 설치 등 정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사업비 조달이다. 전남도가 유치한 투자협약 액수는 16조원에 이르지만 협약 단계 수준이어서 실제 기업들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로드맵도 9조 2590억원의 사업비 중 정부 지원은 고작 R&D에 투입되는 290억원이 전부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일문일답 "풍력발전 세계시장 경쟁력 충분 전남도 풍력단지와는 별도 추진"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일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 발표회' 직후 "해상풍력발전은 후발국이지만 국내 조선·중공업·건설·플랜트·IT·전기 등의 연관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조기에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제도에 의해 사업비가 조성되는 것으로, 발전사업자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실증단지의 정확한 조성 위치와 관련, "영광과 부안 해역에 걸쳐 있으며 지난 2년간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최적지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실증·확산 단계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22km 떨어진 고창시험장(1단계)과 80km 떨어진 새만금변전소로 보내지는 데 대해서도 "단순히 거리 상이 아닌, 풍황·수심·계통연계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5GW 풍력프로젝트와의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해상 풍력은 2.5GW급"이라며 "전남도의 5GW 풍력단지 조성은 자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정부 지원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최 장관은 그러나 "그러나 대립돼 추진되는 개념은 아니며 실증단지를 통해 경험이 쌓이면 기술과 제도적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테니, 전남도 풍력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국가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 발표회'가 2일 영광군 흥농읍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 본부 회의실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정현을 전북도 행정부지사,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영광=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국제도시 도약 위해 자매도시들과 교류 확대"

강운태 광주시장 해외순방 보고회



광주시가 국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관련 기구 및 부서 신설, 해외주재관 확대, 자매·우호도시와 교류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선 5기 조직개편에 따라 사라진 국제협력과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 각국의 자매 및 우호도시와 인적·물적 교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일 오후 취임 후 첫 해외순방 귀국 보고회를 갖고 "광주시가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류 시스템을 마련해야하며,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 이미 갖춰져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뉴욕,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국 광저우에 파견된 해외주재관의 수와 파견국가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야와타고속(자동차, 반도체 부품 생산) 등 기업 등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또 미국 LA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이 미국 굴지의 문화산업기업으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케이투에이엠(3D 영화) ▲2G 디지털 포스트(3D 영상 제작) 등 대규모 투자와 수주 양해각서 체결이라는 결실을 거뒀다. 이와 함께 ▲터보에어(프리미어사 증설) ▲맥스트로닉스(Moxtronix)사(LED) ▲비즈니스호텔 건립 등 가전 산업, 관광업, 관광호텔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강 시장은 이날 "해외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지식경제부에 외국인 투자지역 확대를 요청했다"며 "광주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경찰 주승용 의원 소환조사

지방선거 측근 통해 불법자금 수수 혐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을 2일 소환해 조사했다. 주 의원은 이날 낮 12시30분께 서대문구 미군동 경찰청사에 출석했으며, 곧바로 특수수사와 수사3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 의원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두 차례에 걸쳐 오현섭 전 여수시장(구속)한테서 자신의 측근인 여수를 지역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을 통해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재임 기간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8여명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8월 구속한 오 전 시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 선거자금 명목으로 주 의원 측근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 전 시장이 돈을 건넸다고 지목한 여수를 지역선거

사무소 소장 이모(63)씨를 구속하고, 상임고문인 주 의원 친척 주모(7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주 의원은 "자금이 전달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그의 측근들도 "우리가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주 의원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오 전 시장에게서 "주 의원도 내가 돈을 준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내는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 의원이 돈이 오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오늘 조사의 핵심"이라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미용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Cosmetic Surgery is with Plastic Surgeons). Includes contact info for 대한의사협회 and a list of 15 plastic surgeons in Gwangju with their specialties and addresses.